

# 사과원 나무좀 발생과 효과적인 대책

**최경희** 사과시험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과원의 문제아 나무좀

사과 나무좀류는 고밀식 사과재배가 도입된 1990년대 후반부터 봄철에 산지에서 날아와 수세가 약한 나무를 가해하는 2차성 문제해충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밀식 재배 사과원의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무좀이 월동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져 기주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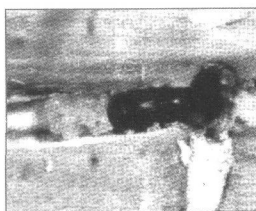
## 나무좀의 예찰과 방제요령

나무좀의 발생예찰 방법으로는 사과나무의 발아기 전(3월 하순)에 나무좀 유인트랩을 이용하면 나무좀이 사과나무로 이동하는 시기를 예찰할 수 있다. 또한 4월 초순부터 오후 2~3시 무렵 사과원을 관찰해보면 기온이 20℃ 이상일 경우에 나무좀이 이동을 시작한다. 이때 작년에 나무좀의 피해를 많이 입은 사과원 또는 올해에 동해 피해를 입은 사과원은 나무좀에 효과적인 약제를 나무줄기에 충분히 살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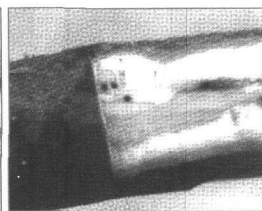
나무좀이 나무에 침입하기 직전에 유기인제를 100배 내외의 고농도로 나무사이에만 바르면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다(잎이나 꽃에 농약이 묻으면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살포시기를 놓치거나 나무좀이 이미 사과나무 줄기 속에 침투했을 때는 100배로 희석한 유기인제와 1,000배로 희석한 살균제 테부코나졸을 혼합해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 구멍에 약액이 밖으로 흘

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주입한다. 유기인제와 테부코나졸을 혼합한 약제는 봄철에 사과꽃과 잎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한 나무의 부위를 관찰해 피해 구멍이 있는 경우 주입한다.

테부코나졸 약제는 암브로시아균을 살균하며, 나무좀 유충의 먹이인 암브로시아균이 없을 경우 나무좀 유충의 공급원이 차단되어 2차적으로 나무좀의 밀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나무좀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예방이므로 사전에 사과나무의 비배, 토양관리, 수분관리 등을 철저히 해 안정된 수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㉞



▲ 피해나무 속의 오리나무좀 성충과 알



▲ 나무좀에 의한 피해나무 내부



◀ 피해 진행 나무

▶ 피해로 말라죽은 나무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5월호)